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허공에 꼭 차 있는게 진리입니다

15면에서 계속

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다면 부처님 법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하셨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신다면 난들 뭘 돌리랴 없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믿을 마음이 생긴다면 한번 목숨빼어 놓을 각오로 덤벼들어 보시라 이겁니다.

본인은 믿고 말에는 조금 믿고 사위는 못 믿는다고 하는데 무쇠 잡쇠를 다 녹여서 강철이 되게 하려면 동방 용광로에 넣어놓고 재성을 시켜야하는 도리를 잘 알려주도록 해보세요. 내 마음이 지극하면 그 음파가 사대를 타고 통신이 되어서 사위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삼훈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대불교신문 독자입니다. 선원 임직원 여러분의 건

전자에 입력된게

풀려 나오는 것이니

거기 꼬달리지 말고

'내 속에서 나온 것

안나오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할 일이다'고

돌려 놓으세요

강과 벌떡 증진을 더욱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1월 13일 수요일판 '길을 묻는 이에게' 크스님 법문 말씀 중에 의문이 생겨 팩스 올립니다.

현대불교신문 16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삼훈이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돌아다닌다. 보통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중 삼훈은 무엇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며 또 이미 태어나는 혼이 있는데 또 돌아다니는 혼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사람이 죽게 되면 물질인 육신은 사대로 돌아가 흩어지고 정신은 업식으로 떠돌는데 이럴 때 업식은 생전에 육신을 지니고 살던 습이 남아 거기에 꼬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물을 만나면 빠져죽을까봐 겁을 내고 불을 만나면 타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살던 집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온갖 살림살이에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집에도 붙어 있고 혈육에도 붙어 있고 묘지에도 붙어있고... 사방으로 흩어져 귀신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 물은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거 다 업식의 나쁜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다. 셋이다 하고 규정짓는 얘기가 아니라 셋이 될 때도 있고 하나가 될 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 공부가 된 사람은 아예 없기도 하고 수많은 화신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외계인 왜 공식출현 않는지요

지구 밖의 외계인은 왜 공식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외계인이 있다니 없다니, 지구에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하는 얘기는 물질계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계와 정신계를 돌이키게 탐험할 수 있는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무시하고 물질계로만 내달으니까 물질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오느냐 안오느냐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현대과학은 아직 반쪽과학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을 수 밖에 없지요.

아시아시피 우리가 이 우주에 살고 있으니 모두들 우주인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생명체로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통신을 하려면 물질로써가 아니라 마음이 계발되어야 합니다.

꿈에 머리 속에서 빛 나타나

● 꿈에 내가 초등학교 때의 친하지도 않은 동종한 친구의 머리를 도끼로 여러번 찍자 겁대기는 벗겨지고 그 안에서 빛이 보였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 돌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 무명의 겹질이 깨져야 영원한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가르치니 감사할 일이지요.

마음 들떠 갈피 못잡아요

● 마음이 어지럽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땐, 어쩌해야 할까요? 고요한 상태로 돌아오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 예전에 대행스님의 책을 읽었을 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려운 군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휴면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모든 게 혼란스럽고,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격동적이기에, 너무나도 들떠있기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한 말



그림·최주현

놓지않고 붙들고 씨름하니 더 어지러워 내 보물 놔두고 남의 보물 기웃거리려야

● 마음 어지러운 것도 내 속에서 집착하고 온갖 살림살이에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집에도 붙어 있고 혈육에도 붙어 있고 묘지에도 붙어있고... 사방으로 흩어져 귀신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 마음 어지러운 것도 내 속에서 집착하고 온갖 살림살이에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집에도 붙어 있고 혈육에도 붙어 있고 묘지에도 붙어있고... 사방으로 흩어져 귀신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 내가 항상 되풀이 놓고 관하라 하지 않습니까? 경계에 꼬달리는 마음을 한생각 돌려 안으로 놓고 마음자리를 지켜

보시란 말입니다. 지켜보란다고 붙들고 있지 마시구요.

동생 정신병 증세 심합니다

● 작년에 저의 동생(백살형:정신분열)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기를 '일체를 놓고 관하라'는 말씀 잊지 않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동생의 증세가 심해져 환청이 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잠도 잘 자지 않고 사람대하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 스님 제 동생이 조상신이나 기타 잡신에 빙의된 것은 아닌지요? 저의 짧은 생각에는 천도재로 신을 천도하면 증세가 좋아질 것 같아서 크스님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본인이 일체를 놓고 관하고, 동생에게도 일러주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세요. 전깃줄과 전깃줄이 이어져야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그게 곧 천도입니다.

● 마음으로 천도재를 지내야 한다든가, 신이 들어보셨다든가, 그런 식으로 규정 짓지 마시고 말씀입니다. 이 법은 공대무변해서 내가 크게 슬러면 크게 쓰고 작게 슬러면 작게 써집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세요. 정히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 스님들께 상의하시고요. 방편으로 말씀입니다.

선달그름 태어난 아이 이름을...

● 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주인공 자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수행하고 있으며 모두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 저는 '98. 12. 31(음. '98. 11. 13) 0시 05분에 범띠 남자아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철학관이나 그 아무 곳에도 물어보고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크스님께서 저의 아기 이름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친견드립니다. 정말 좋은 인연으로 부처님의 지식으로서 지혜롭게 지랄 수 있도록 크스님의 깊은 배려바랍니다. 이달말까지는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합장 하우고 거듭 삼배드립니다. 크스님,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일체 제들과 조상님 함께 하소서.

● 이름이란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편리하겠기에 지어부르는 그 야말로 이름입니다. 다만 이름 지어부르는 거 좋은 뜻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면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그 이름에 마음이 담기도록 지어부르세요. 그리되면 아무게야!하고 부를 적마다 마음으로 통신이 될테니 오죽 좋겠습니까?

미래일 어떻게 대비하는지요

● 스님, 이렇게 지면으로도 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 두어년 정도 이곳을 통해 스님의 말씀을 지문해 보기도 했고 이번 일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다녀오다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 노크를 합니다.

● 지난 '97년 봉담관계로 스님을 어머니와 함께 친견한 적이 있었고 그후 '98년 3월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 조교생활을

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어디고 장이 낫다고 할 때에 치료하려면 하고... 그렇게 자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속의 보배가 때로는 약사어래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보물은 몰라라 하고 밖으로 남의 보물을 기웃거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대장부가.

법문해석 제각기 다른이유

● 원 신도가 어떤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한사람은 행사 개최를 원하고 한사람은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사람이 서로 관을 한 다음 안양본원에서 크스님 법문을 듣고는 서로서로 저 법문은 각자 지기를 위해서 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리는 분명 하나일텐데 각자 자기 관념, 그러따라 각기 해석하는 이

사람은 누구나 보배 갖고 태어나

관세음도 되고 지장·칠성도 되며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는...

그렇게 자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 향이 벌써 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중간결과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졌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스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셋째주 법회 때 무릇 관총들도 닥쳐올 일대 대해 대비를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한치 앞도 못보느냐는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 내가 항상 말하지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아니라 이 삼라만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이 물질계만 우선으로 알고 거기에 꼬달려서 돌아가고 있으니 통할 리가 없죠.

● 상황을 물론 제 주인공지라에 깊이 관하고 답을 기다리면 되겠지만, 어찌 받아들여 할지 크신 법문 내려주십시오. 크스님 오래오래 저와 함께 하십시오.

● 왜 저 장남이 코끼리만지고 제가 곰 한마디씩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게 옳으나 내가 본 게 옳으나, 내가 본 게 많으나 내가 본 게 많으나 한다면 끝이 없겠지요.

● 진리엔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허공에 꼭 차 있고 일체가 다 진리입니다.

● 우리가 숨을 쉬면서 각자 공기를 들여 마셨다 뱉었다 하는데 그 공기가 나만을 위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누가 마시고 누가 뱉어도 허공 그대로 이지요. 그와 같습니다.

● 다만 전자의 숨에 따라 거기에 차별이 있다고 서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 또한 공부의 재료가 아니겠습니까.

복제인간은 업도 같은지요

● 복제인간을 만드는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몸 한 조각을 떼어내 그것을 배양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란성 쌍둥이 같이 모습, 성격, 잃게되는 질병, 여러가지 취향 등등이 같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런 경우 그들은 같은 업을 지닌 같은 사람입니까?

● 또 일반인의 경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과정에서 영식이 합하여 삼합을 이룬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정자와 난자 자체도 염연한 영식을 가진 생명일텐데요. 왜 다른 영식이 끼어들어만 하나요?

●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혼란스러워서 여쭙습니다.

● 물질과 정신이 결합이 되어야지 물질로만 있다면 그건 목석이고 물질인 육신이 없다면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온통 무후가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두 차원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정자 난자로만 뭉친 채로 그만일 것 같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 그러나 사람의 몸 조각을 떼어내서 복제를 한다면 그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과 한가지인데 사람이 되려면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와 업식이 거기에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겉대기로만 보시지 마시고 마음을 아셔야 인간의 참 모습을 알게됩니다.

함 차 한마음

여시아문의 세계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많은 도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누는 이 책의 울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빛이낸 깨달음의 흐름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0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7년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저의 저렴한 가격에 한 평면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불필요한 경비만 제거하고 과정중지를 사용한 것도 현대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여시아문의 의지를 실현한 것입니다.

여시아문은 '좋은 바 한 치의 여과도 없이 전하되는 정신으로 시대를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